

2009 개정 체육교육과정 표현활동 지도의 난점과 개선방향

박 수 현*

목 차

Abstract

I. 서론

II.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

1. 2009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2. 수업내용
3. 교수·학습 계획 및 방법
4. 평가의 방향

III. 표현활동 지도의 난점과 개선방향

1. 핵심내용이 누락된 교육과정
2. 비체계적인 교육과정
3. 교육과정 내 성취기준 선정
4. 평가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ploring difficulties and improvements of teaching 'expression activity' in physical education regarding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Park, Soo-hyun ·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In Korea, dance education is not an independent subject area, but included in the realm of physical education as 'expression activity'. Other than pyramid building, jump rope with music, rhythmic gymnastics, its curriculum contents are the same as dance education. Dance education has many positive aspects since dance uses body & mind and brings the effects of arts education at the same time. The dance education makes it possible to build holistic growth of body and mind, noticing and solving problems by critical and analytical thinking, imagination,

* 대구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전공 박사과정 수료

논문투고일: 2014. 7. 20. 심사일: 2014. 8. 20. 게재확정일: 2014. 9. 5.

the understanding of one's and other's culture, the attitude of sympathy and self expression.

However, classroom teachers recognize 'expression activity' as the most difficult activity among other activities in physical education. The problems of content structure, professionalism of the teachers, classroom environment are the reasons. Yet this paper studied the national curriculum and found some possible improvements in the curriculum.

Missing of the 'time aspects', 'segmentation of the curriculum, false division of the accomplishment standard, and evaluations are the problems.

As a result, 'time aspects' has to be added as the elements of movement. Segmentation of e dance curricular has to be fixed since Progressive curriculum is needed both in creative dance and folk dance. The accomplishment standard such as perception of the body, adaptability to the rhythm, diversity, creativity cannot be divided by grade, so need to be fixed. To improve evaluation, the research and training course of multidirectional evaluation methods which can satisfy the goal of arts education,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dance education.

key words: expression activity, dance education, national curriculum

주요어: 표현활동, 무용교육, 교육과정

I . 서론

우리나라의 초등 무용교육은 1,2학년에서는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교과 안에서, 3학년~6학년에서는 「체육」 교과 안의 '표현활동'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97년 21세기의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며 살아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한 제7차 교육 과정이 고시된 후 2004, 2005, 2006, 2007, 2009년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제 7차 개정 교육과정 중 3~6학년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와 같은 활동가치 중심으로 교과가 구성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표현활동은 체육교과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꾸미기 체조, 리듬체조와 같은 스포츠의 종목들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의 내용구성을 보면 경쟁적이거나 도전적인 스포츠 정신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신체 활동의 심미적 요소의 이해, 창의적인 표현과 발표, 그리고 다양한 표현유형과 문화를 감상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체육교과 내에 포함된 무용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창작(creating), 발표(performing), 감상(appreciation)을 통해 예술적 교육, 미적 교육, 문화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무용교육의 내용이 표현활동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김화숙, 2002:3).

2009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이며 교육 **가치**는 ‘몸과 마음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 상상력,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 및 향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상과 가치는 무용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신체를 매개로 하는 무용교육은 상상력, 창의력, 문화에 대한 이해력, 공감하고 협동하는 능력, 문제해결력, 자아 존중감, 몸과 마음의 균형 있는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무용교육이 초등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의 학교교육에서 무용교육의 위치는 어둡기만 하다. 표현활동은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의 다섯 가지 활동 중에 교사와 학생들이 가장 기피하는 활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이미경, 2011; 정광진, 2012).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표현활동 수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법이 언급되었지만(서예원, 2003; 이종형, 2009; 황숙영, 2007; 김현정, 2011; 황경숙, 2012) 여전히 표현활동은 다수의 교사들에게는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부분이다. 예술교육이 아닌 체육교육 내의 움직임 교육으로 무용을 보고 표현유형에 따라 수업 내용을 분류해 놓은 교육과정, 방대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그에 따른 학생들의 표현활동 수업에 대한 인식의 문제,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무용교육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실질적인 환경의 문제, 평가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표현활동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그동안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3~6학년 표현활동이 지닌 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

1.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2009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창의적 요소와 인성적 요소를 두루 갖춘 인간으로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자주인,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창의인,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는 문화인,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공

동체의 발전에 참여하는 세계인을 길러내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 상상력, 우리문화와 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향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등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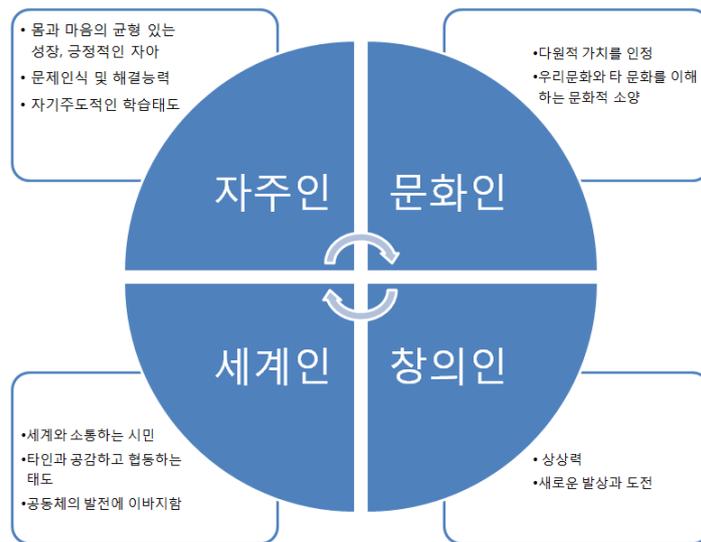


그림 1. 2009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그동안 무용교육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면 무용교육이 이러한 인간상을 가장 잘 실현시킬 수 있는 교과임을 알 수 있다. 무용은 타 예술교육과는 다르게 신체가 도구이며 재료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몸을 발견하고 소중함을 인식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 있는 성장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체 움직임과 창의적인 경험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행위는 자아개념과 존중감을 향상시켜 자신감과 성취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김화숙 외, 2007:15-17). 움직임의 창의적 표현이나 무용의 창작 활동은 모두 개인에게 잠재된 상상력을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상상력은 사물이나 현상을 여러 시각에서 볼 줄 아는 자신이 가진 경험이나 지식을 통합하여 사고하는 상상력에서 비롯된다(김화숙 외, 2013: 6-16). 안무를 위해 논리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가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감성적 측면 또한 필요로 하는데(김화숙 외, 2013:68), 이러한 창의적 조합능력은 창의성의 발달을 가져온다. 자신의 상상을 무용으로 형식화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표현의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를 기를 수 있으며(김자영, 2010), 다른 이들과 작품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함께 몸을 움직이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민속무용을 배우는 것은 학생들이 문화리터러시를 지닌 문화인(무용발전추진위원회, 2010:48)이자 모두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세계인이 되게 한다.

2. 수업내용

2009 개정 체육교육과정 표현 활동의 수업내용은 다양한 표현유형 습득 이외에도 표현과 발표 그리고 감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현활동의 가치는 신체 활동의 심미적 요소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다양한 표현 유형과 문화적 특성을 감상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표현의 대상을 기준으로 움직임 표현, 리듬 표현, 민속 표현, 주제 및 창작 표현으로 구분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236). 움직임 언어와 요소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3학년의 움직임 표현, 리듬에 맞춘 신체활동과 음악줄넘기, 율동 만들기, 리듬체조와 같은 항목들을 리듬에 맞추어 표현하는 4학년의 리듬표현, 한국과 세계 각국의 민속무용을 배우는 5학년의 민속표현, 주제를 가지고 창작의 단계와 구성 원리에 따라 창작을 해보는 6학년의 주제표현으로 표현의 대상과 범위를 나눈 것이다. 지도방법을 살펴보면 창의적 표현, 발표, 감상능력과 태도 기르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236).

표 1. 표현활동의 내용체계

| 학년 | 표현활동 내용체계 | | |
|----|---|---|--------|
| | 표현활동 구분 | 신체활동 예시 | 성취기준 |
| 3 | (가) 움직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움직임 언어와 표현요소 ● 움직임 표현 방법 ● 창의적 표현 및 감상 ● 신체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움직임(겔로핑, 러닝, 스키핑, 스텝, 점핑, 홉핑) - 비이동 움직임(구부리기, 굽히기, 돌기, 비틀기, 털기, 흔들기) - 조작 움직임(던지기, 받기, 차기, 치기) - 표현요소(신체, 공간, 노력, 관계)에 따른 신체활동(다른 사람 동작 따라하기, 흉내내기 놀이) | 신체 인식 |
| 4 | (나) 리듬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듬표현 유형과 요소 ● 리듬에 맞춘 신체활동 표현 방법 ● 창의적 표현 및 감상 ● 신체 적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봉체조, 공체조, 리본체조, 후프체조 - 음악에 맞추어 율동하기, 음악줄넘기, 즉흥표현 등 | 신체 적응력 |

| 학년 | 표현활동 내용체계 | | |
|----|--|--|------|
| | 표현활동 구분 | 신체활동 예시 | 성취기준 |
| 5 | (다) 민속 표현 • 종류와 특징 • 민속표현 방법 • 창의적 표현 및 감상 • 다양성 | - 우리나라의 민속무용(소고춤, 탈춤, 강강술래, 농악무) - 외국의 민속 무용(엔카, 패티케이크 폴카, 에이스 오브 다이아몬드, 구스타프 스콜, 트로이카, 마임, 티니클링등 | 다양성 |
| 6 | (라) 주제 표현 • 구성 원리와 창작 • 움직임 창작 표현 방법 • 창의적 표현 및 감상 • 독창성 | - 꾸미기 체조, 실용무용, 창작무용 | 독창성 |

3. 교수·학습 계획 및 방법

교수학습 계획에 있어서는 각 중영역(표현활동)을 해당 학년군 안에서 분산 편성하거나 각 학년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혼합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교수 학습방법을 살펴보면, 창의인성을 지향하고 개인차를 고려할 것,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을 조성할 것, 통합적인 교수학습활동을 지향할 것, 효율적 교수학습 방법을 선정하고 활용할 것 등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하여 다양하게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고 변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1) 창의와 인성 교육요소들을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탐색, 인지, 판단하여 실천할 수 있는 **창의 인성을 지향하는 교수학습 환경**을 만들고 조성한다.
- 2) 개인의 흥미, 운동기능, 체력, 성차, 학습유형과 같은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으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한다.
- 3) 학생들이 스스로 주요 개념을 탐색하고 이해하며 스스로 과정을 해결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주도적 교수 학습 환경을 조성 한다.
- 4) 신체활동 가치의 학습을 위해서 신체활동의 직접 체험활동과 간접 활동인 읽기, 쓰기, 조사, 감상하기, 토론하기가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적 교수 학습활동을 구성하여 제공한다.
- 5) 가장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스타일, 수업모형, 수업기법, 교육 기자재 등 교수학습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4. 평가의 방향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포함하여 실시하며 교사평가, 상호평가, 자기평가, 양적평가, 질적평가를 병행하여 한다. 지필검사, 체크리스트, 학습일지, 보고서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평가한다.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중 특정 영역에 평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Ⅲ. 표현활동 지도의 난점과 개선방향

표현활동 지도의 운영 실태와 어려움 그리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7차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 꾸준히 이루어졌다(박은규, 박순이, 2002; 서예원, 2003; 황숙영, 2007; 이종형, 2009; 황경숙, 2012). 하지만 표현활동은 여전히 교사들에게 어려운 수업으로 인식되어 있는데(김현정, 2011; 정광진, 2011), 그것은 표현활동을 지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첫째는 핵심 내용이 누락된 교육과정의 문제, 둘째는 비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문제, 셋째는 교육과정 내의 성취기준의 선정의 문제, 넷째는 평가의 문제이다.

1. 핵심 내용이 누락된 교육과정

김현주는(2010:96) 움직임의 언어와 표현요소, 표현 방법 등을 다루는 3학년의 ‘움직임 표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시간의 요소, 즉 리듬과 박자에 따라 달라지는 움직임의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움직임 표현과 리듬표현의 이해가 학년별로 구분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현재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4학년 ‘리듬표현’에서 리듬체조와 음악줄넘기를 신체활동 예시로 제시하며 리듬에 따라 달라지는 신체 적응력을 활동 가치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리듬표현’에서 필요함을 ‘리듬’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있지 않고 신체활동 예시만 나타나 있다. 리듬에 따른 신체 적응력은 특정한 활동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닌 모든 학년의 학습내용에서 다양하게 발전되고 심화되어 적용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리듬을 이루는 ‘시간’은 무용의 요소 중 하나이다. 창작무용에 대한 저자인 Gilbert(1992), Brehm & Mcnett(2008), Rowen(1994)등도 시간을 하나의 독립된 무용요소로 보았지만 현재

3학년 ‘움직임 표현’의 표현요소를 살펴보면 신체, 공간, 노력, 관계로 이루어졌음을 찾아 볼 수 있다. 무용의 요소는 신체, 시간, 공간, 노력, 관계 이렇게 다섯 가지이다. 추후에 교육과정이 개정된다면 3학년의 움직임 표현요소에 빠르기, 액센트, 프레이징, 리듬의 패턴과 같은 ‘시간’ 요소에 대한 설명이 반영된 교육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Laban의 움직임 분석에서 ‘시간’ 요소는 ‘노력’ 내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노력’의 본래 용어는 ‘에포트’(effort)이다. 에포트는 공간, 시간, 무게, 흐름의 요소가 통합되어 무용수의 몸 안에서 표출되는 힘 혹은 에너지를 의미한다. 에포트의 각 요소들은 무용수의 몸 안에서 표출되는 에너지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공간, 시간, 무게, 흐름 등의 요소가 두 세 가지씩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에포트를 ‘노력’으로 해석해서는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김화숙, 2002:8). ‘에포트’ 내에서의 시간은 Sudden(갑작스러운)과 Sustained(지속적인)이라는 용어로 설명되며 독립된 것이 아닌, 움직임에서 많은 경우 에포트 내의 다른 요소들과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Laban, R. & Barteniff, I., 2002:12).

2. 비체계적인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서 <표 1>의 표현활동의 내용체계를 보면 각 학년마다 ‘창의적 표현 및 감상’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표현활동에서 ‘창의적인 표현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6학년에 이르러서 요구되는 ‘창의적인 표현능력’은 작품을 구성 원리에 따라서 창작하는 것까지의 단계로 발전된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창작의 단계에 따라 무용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일임으로 3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기까지 창작의 단계와 구성 원리에 따른 창작의 전단계로 학생들이 상상력을 이끌어내어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즉흥연습이 필요하다. 무용에 있어서의 즉흥은 참나적, 여흥적인 것이 아니라 예술로 승화시키는 개인적 감정의 첫 출발이다. 즉흥의 1단계가 즉흥능력이 없거나 낮은 사람이 즉흥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1단계라면, 더 높은 수준의 테마나 조건을 주어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2단계이다(김화숙 외, 2013:187-188).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3학년의 내용을 이동 움직임, 비이동 움직임, 표현요소 등을 이용한 즉흥의 시작 단계로 본다면, 3학년에서 즉흥을 경험한 뒤에 6학년에서 창작의 단계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 작품을 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지도내용이 확장되어야 하고, 학생들도 충분한 경험을 한 이후에야 구상에서부터 발표까지 하나의 완결된 작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외국민속무용과 한국민속무용은 표현활동의 수업 시간에 비해 그 내용이 방대하고 종류가 많다. 외국무용의 경우에는 단일스텝으로 구성된 간단한 민속무용에서 시작하여 복합스텝으로의 단계적인 구성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김화숙, 2002:13). 예시된 신체활동의 종류를 살펴보면 한국무용은 소고춤, 강강술래, 탈춤, 농악무 등이며 외국 민속무용은 엔카, 패티케이크 폴카, 에이스 오브 다이아몬드, 구스타프 스킨, 트로이카, 마임, 티니클링 등과 같이 방대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이르러서는 민속무용의 종목이 중복되고 배우는 내용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김화숙, 2002:23). 그러므로 좀 더 학년 수준에 맞는 민속무용의 선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 민속무용은 장단부터 시작하여 발 디딤이나 기본 팔 사위부터 아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을 습득하는 것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동작과 음악에는 ‘민속’ 이라고 부르는 그 문화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배우는 것이 첫 번째이다. 강강술래 하나만 하더라도 굴신, 발 디딤, 팔 감기 등의 기본 춤사위가 3분박의 흐름 속에 녹아들어가야 하는 형태가 먼저 습득 되어야 한다. 창의적 표현 및 감상보다 원형을 먼저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오레지나(김화숙 외, 2013:210)는 민속표현은 민중문화의 정통성을 가진 실체로서 전통문화의 집합표상이며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무용이라고 하였다. 교육과정에 예시된 민속무용의 창의적인 표현은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발하기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겠지만, ‘민속표현’ 이라는 수업목표 안에서 민속표현을 이해한 다음 해야 한다. 이 때 민속표현의 특성을 유지한 채 창의적 표현을 해야 하므로 그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창작무용 안에서 민속표현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으로 이해해야 함을 교육과정 내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까지 한국 민속무용의 내용이 강강술래, 소고춤, 탈춤, 농악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물론 이와 같은 춤들은 대중적이며 배우기 쉬운 춤들이지만 다채로운 우리문화를 알 수 있도록,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보완이 필요하다.

3. 교육과정 내 성취기준 선정

현재의 개정교육과정을 살펴보면 3학년은 표현요소를 알아보면서 자신의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신체인식, 4학년은 리듬체조와 율동에 맞추어 움직이면서 리듬의 변화에 따라 신체 움직임을 달리하는 신체적응력, 5학년은 민속표현과 감상활동에 참여하면서 여러 민족의 문화를 인식하는 다양성, 6학년은 창작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독특하고 개성

있는 신체표현으로 만들어내는 독창성으로 성취기준이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학년별로 표현활동을 구분하고 성취기준을 나누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각 3,4,5,6학년의 성취기준인 신체인식, 리듬의 변화에 따른 신체적응력, 다양성, 독창성과 같은 것들은 표현활동에 있어서 각 학년별로 따로 떼어 생각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3학년에서 신체를 인식하고 표현요소를 경험하고 이해하며 그에 따른 즉흥과 움직임 놀이를 하며 학생들은 독창적이고 다양한 자신의 감각을 드러내게 된다. ‘신체’를 표현할 때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움직임, ‘공간’을 표현할 때에는 공간에 대한 적응력을, ‘노력’을 표현할 때에는 공간, 시간, 무게, 흐름의 요소가 복합된 힘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표현하는데, 이 때 음악이나 리듬은 에포트가 가미된 움직임을 이끌어내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관계’를 표현할 때에는 다른 이들의 신체 움직임 리듬을 고려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다. 4학년 리듬표현의 종목인 음악 줄넘기, 율동 만들기와 같은 활동을 할 때에도 독창성은 창의적 표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5학년에서 여러 나라의 민속무용을 배우며 다양성을 기를 수 있지만, 창작 무용을 통해서도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생각과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법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6학년에서 주제에 따른 작품을 만들어 낼 때, 음악의 선정은 작품 내 움직임의 흐름과 분위기를 주도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무용작품을 창작할 때에 이러한 음악에 대한 적응력과 해석은 필수적인 것이다.

4. 평가

이미영의 연구(2009:69)에서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표현활동의 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다섯 가지 영역 중 가장 낮았다. 이것은 표현활동이 교사가 어려워하는 평가영역임을 보여준다. 표현활동의 경우에 수행평가를 통한 교사의 관찰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황숙영과 손천택의 연구에서(2006:36)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평가시간에 학생들이 결과물을 발표하게 하고 교사의 안목에 의해서 그것을 평가하는 단일한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발표와 교사의 관찰에 의한 평가는 교사의 시각적 기억과 개인적 안목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2009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방법으로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의 도입과 읽기, 쓰기, 조사, 감상하기, 토론하기와 같은 통합적 방법을 활동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체육교과 내에서도 표현활동의 평가는 지도서에 명시된 학습목표 이외에도 그 방법이 매우 다각적이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많은 평가도구들을 만들어야 해서 교사들에게 시간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평가연수의 도입이 필요하다. 2009 교육과정에 도입된 창의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창의 인성적

인 요인의 평가, 읽기, 쓰기, 조사, 감상하기, 토론하기와 같은 통합적 교수활동을 반영한 평가, 자기 주도적으로 평가하는 자기평가, 감상에서의 동료평가, 학습일지, 체크리스트, 포트폴리오 등이 있다.

IV. 결론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무용교육은 체육교과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표현활동’이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3학년부터 6학년의 표현활동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표현활동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신체를 매개로 하는 무용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가치인 ‘몸과 마음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문제인식과 해결을 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상상력’, ‘우리문화와 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향유’,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활동은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체육교과 중 가장 어려운 활동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본 논문에서는 그 이유와 개선방안을 첫째, 핵심내용이 누락된 교육과정, 둘째, 비체계적인 교육과정, 셋째, 교육과정 내의 성취기준의 선정, 넷째는 평가의 문제에서 찾고자 하였다.

첫째, ‘시간’ 요소는 무용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서 누락되었다. 리듬을 이루는 ‘시간’은 무용의 요소 중 하나이므로 3학년 ‘움직임 표현’의 표현요소를 신체, 시간, 공간, 에포트, 관계 이렇게 다섯 가지로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속도, 박자, 액센트, 프레이징, 리듬패턴과 같은 ‘시간’ 요소에 대한 설명이 반영된 교육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리듬’은 ‘시간’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으로써 리듬에 대한 신체적응력이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 내용이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 민속무용과 한국 민속무용 모두 내용이 방대하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걸쳐서 그 내용이 중복되므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위하여 내용 선정과 함께 기초 단계에서부터의 점진적인 발전이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창의적 표현의 경

우에도 6학년에서 창작의 구성 원리에 따른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3학년 부터 점진적인 즉흥훈련이 필요하므로 4학년과 5학년에도 창작무용의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각 학년마다 나뉘어진 교육과정의 내용과 성취기준을 보면 3학년은 움직임 표현을 통하여 신체적응력을 키우는 것, 4학년은 리듬표현을 통하여 신체적응력을 키우는 것, 5학년은 민속표현을 통하여 다양성을, 6학년은 주제표현을 통해 독창성을 키우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각 성취기준은 표현활동의 움직임 내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의 평가를 살펴보면 주로 발표를 통한 수행평가 중 교사의 안목으로 이루어지는 관찰 평가가 대부분이다. 예술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에 대한 연구와 평가도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표현활동 수업에서 읽기, 쓰기, 조사, 감상하기, 토론하기와 같은 통합적 교수활동을 반영한 평가, 자기 주도적으로 평가하는 자기평가, 감상에서의 동료평가, 학습일지, 체크리스트, 포트폴리오 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필요하므로 다각적인 평가를 위한 전문가들과 교사들의 협동적 연구와 평가연수의 도입이 필요하다.

표현활동은 신체를 매개로 하는 예술교육이다. 신체교육인 체육의 이점과 미술과 음악 같은 예술교육의 이점을 두루 지니고 있는 표현활동이 학교현장에서 활성화된다면, 2009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창의 인성을 갖춘 인간상과 부합하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자영(2010), “초등학교 창작무용수업이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 21권 1호**, 65-82.
- 김현정(2011), “창작표현활동 수업에 대한 인식: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청주교육대학교 대학원.
- 김화숙(2002), “제7차 교육과정의 무용내용 분석”,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3집 제2호**, 1-26.

- _____ (2007), “창의성과 즉흥무용 교육의 탐색”,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8집 제2호**, 1-20.
- 김화숙, 류분순, 신은경, 신정희, 임혜자, 오레지나, 한혜리(2013), **무용교육론**, 도서출판 한학문화.
- 김현주(2010), “초등학교 창의적 무용수업 활성화를 위한 영상교재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65권**, 91-115.
- 교육과학기술부(2011),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 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2010), **무용교육의 힘**, 댄스뷰.
- 박은규, 박순이(2002), “초등학교 무용수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점 모색”,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학회지 제41권 2호**, 477-486.
- 서예원(2003),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인식 및 운영실태 조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4집 제2호**, 1-26.
- 이미경(2011), “초등교사와 학생이 선호하는 체육수업 내용분석”,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한국체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미영(2009), “초등학생의 체육 수행평가에 대한 인식”,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이종형(2009), “초등학교 표현활동 교육실태 분석”, 한국아동교육학회, **아동교육 18권 3호**, 191-200.
- 정광진(2012),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표현활동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 황숙영(2007), “초등학교 표현활동 수업 실천의 어려움”,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제14권 제2호**, 41-61.
- 황숙영, 손천택(2006), “초등학교 표현활동 수업의 실천과정”,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제13권 제2호**, 25-40.
- 황경숙(2012), “무용철학: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제자리 찾기”, 한국체육철학회, **한국체육철학회지 제20권 2호**, 99-113.
- Gilbert, A. G.(1992), *Creative Dance For All Ages*, The Americ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 Brehm, M. A. & Mcnett, L.(2008), *Creative Dance for Learning*, The Kinesthetic Link.
- Rowen, B.(1994), *Dance and Grow*. Princeton Book Company, Publishers.
- Laban/Barteniff Institute of Movement Studies(2002), *Introduction to Laban Movement Analysis*, Janis Pforsich.